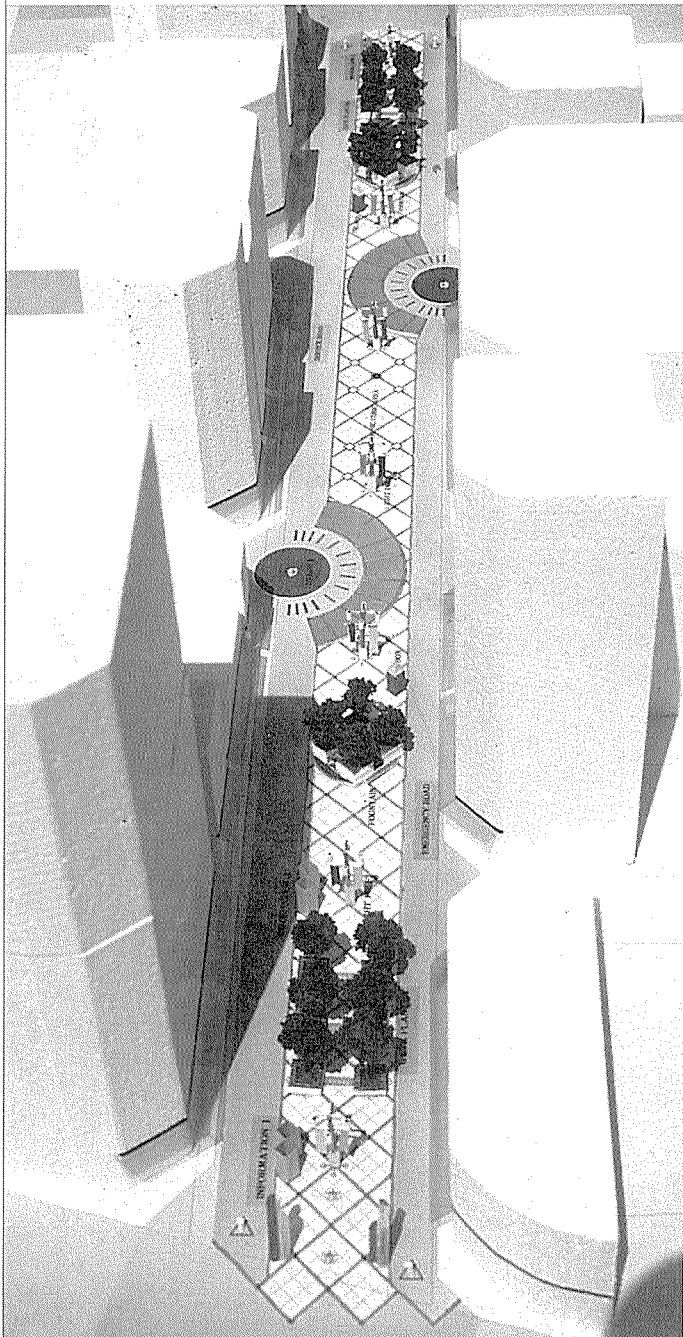


건축이 아닌 곳에서의 건축가의 일

Architect's View of Non-Architecture Design

하양호 / (주)건축사사무소 건축세계
by Ha Yang-Ho

32 만



서울 종로2가 가로공원 조성계획 모델

건축을 진실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원고요청과 함께 필자 스스로에게 해 본 질문이다.
우리 건축가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건축주의 요구, 실제 작품에 필요한 순수시간의 부족과 난해한 작업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 제공이 어려운 여건들.
의뢰자와 건축가 상호간에 신뢰가 쌓이는 또다른 계기가 되면 답할 수 있을까?

이 프로젝트는 건축물이 아니다.
Design 대상을 건축물에 한정해서 생각해 온 필자로선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건축가의 눈이 단순히 건물계획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고 본다. 건축가에게 있어서 도시내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꾸며보고, 다듬어 보고픈 충동이 얼마나 많겠는가. 아무튼, 보고 느낄 수 있는 모든 Design 영역에서 우리내 역할이 커졌으면 하고 바래본다.

건축물이 역사적 의미를 지녔다면 도로 또한 그렇다. 종로가 종로라고 불리는 것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듯이 도로는 역사적 흐름과 함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속적 요소이다.

수십년간 이 거리를 지배(?)해 온 상인들은 도로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 곳에 뿌리 내린 이들과 찾아오는 이들 모두를 위해 필요성은 분명했다. 종로구청 또한 환경개선의 명분으로, 그 상인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에게 요청되었으며,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필요한 예산 확보와 계획 방향의 불명확한 기준, 차 없는 거리조성을 위한 관련법(주차장법 등)수정의 행정

적 문제와 노점상들의 반대에 대한 대처 등...

의뢰되어진 후 예전의 느낌과 전혀 다른 입장으로 나는 일주일 간 이곳을 둘러 보았다.

기존의 도로는 이러했다. 거리에 면한 상가들의 제 멋대로의 꾸밈과 전면의 무차별 전용,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과 가판대, 즐거운 보행은 상상할 수 없고, 마음 한 점 줄 곳 없는 공간배열. 빨리 지나쳐 버리고 싶은 미려없는 통과 도로.....

그러나 그곳은 만남과 모임과, 젊은 세대를 위한 짧은 문화가 있었다. 이 거리가 이들의 문화가 제대로 숨쉴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준이 불명확한 이곳에 선을 긋고 싶었다. 도로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이용자의 인식 또한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영역화한 도로의 Design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모두들 빠른 속도로 걸었지만 나는 천천히 걷게 하고 싶다. 통과해 버리는 곳 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변상가는 이곳에 있음이 당연하고, 공유하는 도로는 진실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만 한다. 이곳이 어떤 곳이라는 특성을 우리 모두는 느껴야 한다. 영역성이 높아야 빠르게 인식된다. 영역은 달혀져 명확한 경계가 이뤄질 때 높이 인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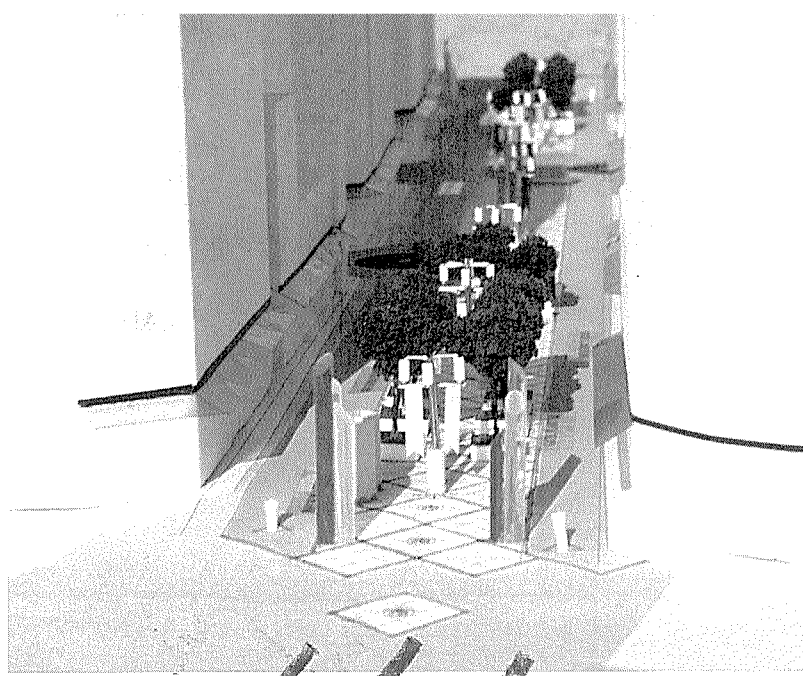
이 도로는 폭 15m, 길이 150m의 남북 청계천2가와 종로2가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의 영역으로서 2개의 내부 교차로가 걸쳐져 더 더욱 명확성이 떨어진다.

내부 교차로는 분절하되 흡수를 강하게 하고 내부 Design은 모여서 어울려야 했다.

양끝. 청계천2가와 종로2가는 차량과 함께 상당한 속도감을 갖는다. 빠른 보행자는 구분된 영역에 진입함에 있어 영역 경계의 gate를 지나 신선하고 새로운 나무와 물을 만난다. 내가 아는 숲과 그 나무들은 나를 정화시켜 순수하게 했었다. 길 전부를 나무와 풀로 조성하고 물이 흐르게 하면 어떨까? 그러나 상인들은 공업이 이뤄질 수 있는 광장과 조용하기 보단 떠들썩한 분위기를 상상한다.

숲은 훼손되고 기념식수만 이뤄진다. 당초 예산이 반감되었다. 서울의 도로밀은 거미줄처럼 무질서하게 각종 배관들이 엉켜 있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한다.

의뢰자는 상품진열 효과와 선전을 위한 모임의 장이 되었으면 했다. 나름대로 간이 음악하나 젊은이의 문화공간을 생각하며 협소한 도로를 완화시키는 2개의 교차부에 무대를 마련했다. 행사가 이루어지면 간이무대를 꾸미기로 하고 무대형태 모습의 바닥pave를 종로구의 영역도와 관할 행정동의 위치를 담아 표



종로2가 가로공원 조성계획 모델

현하고 다른 무대는 구가 관할하는 7개 보물과 사적들 중심으로 위치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도록 그래픽화 하여 종로를 홍보했다. 정밀한 그래픽은 예산과다와 기술적 실현불가로 생략되었다. 그리고 중앙부는 종각의 형상으로 바닥을 입체화해 실 곳을 마련하고 상징적 의미를 담는다.

도로가 개선되었다고 일을 끝낼 순 없었다. 인접한 모든 건축물들이 새로이 단장하고 통일된 awning을 설치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나무도 거리 역사와 맞게 오래된 것이 좋겠다고 했다. 항상 청결하고 우리 것이라는 생각으로 유지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종로2가 가로공원 조성 후의 모습



종로2가 가로공원 조성 전의 모습

64년

64년

64년